

장성군,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역경제 활력 제고

키오스크·오븐·칸막이 등 지원
사업비 50% 자부담 가능 조건
희망 영업주 28일부터 방문 접수
전남제천 대비 최대 1500만원

장성군이 지역 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지원에 나섰다. 군은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 상권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21일 장성군에 따르면 환경개선 대상은 공고일인 19일 기준 영업주 주민등록 주소가 장성군으로 되어 있는 지역 내 업소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사업비 50% 자부담이 가능해야 한다.

식품위생업소의 경우 칸막이(파티

션), 오븐, 키오스크 등 소규모 장비 구입은 소요 금액 50%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리장, 영업장, 화장실 등 시설 개·보수는 소요 금액의 50%를 5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미용실, 이발소, 목욕탕,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 영업장 개·보수는 소요 금액의 50%를 최대 500만원까지 받는다.

2025년 4월 장성에서 열리는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대비 차원에서 '선수단 사전예약제' 참여 숙박업소의 객실 도배·장판 교체를 사업비의 50%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오는 28~30일 장성군 일자리경

제실 식품위생팀 또는 장성군 외식업지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위생업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장성군 일자리경제실 식

품위생팀(061-390-7312)으로 하면 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위생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군 이래 최초로 열리는 2025년 전남제천의 성공 개최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라이브커머스 운영관리자 교육 함평군, 스마트 강소농업인 육성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스마트 강소농업인'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운영관리자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1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3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교육장에서 진행됐다.

교육 과정으로 쇼호스트 설득 기법 및 셀링 포인트 설정, 1인 방송 시스템 설정 및 진행안 작성, 라이브커머스 장비 조작법, 라이브 방송 연출 노하우 및 실습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농특산물 종합쇼핑몰 '해림' 스마트스토어를 활용, 셀러라이브 전문 쇼호스트 등이 함께 참여해 농업인이 생산 농특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실습형 과정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성과로 함평군은 '2024 전남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2024 농촌진흥청 주관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문정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급변하는 농업 유통 환경 속에서 온라인 판매 등 유통구조의 다변화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지역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 운영 담양군, 건강 상태 측정 등

담양군은 지난 19일 가사문화면 인암 경로당에서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를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으로,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대형 버스가 의료 취약지 주민들을 찾아가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전남건강버스 순회진료는 순천의료원과 가사문화면 공중보건의사 등 10명의 의료 인력이 참여해 마을에서 5km 이내에 병원이 없는 의료 취약지역에 방문,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와 더불어 심폐소생술 교육 등 다양한 보건교육을 제공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시민들이 담양 농특산물들을 살펴보고 있다. 담양군은 지난 19일 월산면 용흥사에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농특산품 직거래 장터

20여 품목 20% 할인 판매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지난 19일 월산면에 자리한 천년고찰 용흥사에서 담양 농특산품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21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 봉은사 신도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담양의 대표 농특산품인 식혜, 딸기즙, 한과류, 참송이버섯, 장류, 김부각

등 20여 품목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다.

용흥사 방생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서 먼 길을 달려온 신도들은 담양의 전통 방식으로 만든 식혜와 담양의 명품 딸기로 만든 딸기즙으로 더위를 식혔으며 추석 채비를 위한 한과와 참기름 등을 구매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생 법회의 취지를 살

려 추석을 앞두고 불우이웃을 위한 '공양미 300석' 기탁식도 함께 진행했다. 봉은사와 도선사 신도들이 200석, 담양 쌀조합공동법인(담양통합RPC)에서 100석을 기부했으며 기탁된 쌀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추석 전 배부할 계획이다.

이병노 군수는 "지역 농특산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용흥사와 신도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추석에도 담양 농특산품을 많이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화순군, 을지연습 총력 대응 나선다

전시 비상대응능력 강화

화순군은 22일까지 화순군 공무원 400여명과 유관기관 50여명 등 총 450여명이 훈련에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훈련 첫날인 지난 19일에는 오전 8시부터 전시상황으로 직제를 편성하는 훈련을 실시했고 을지 2중 사태가 발령됨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주 소산시설인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로 중요문서와 물품 등을 이동시키는 기관 소산·이동훈련을 진행했다.

사전 파견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해당 기구로 응소하여 창설기구별 담당 임무

를 수행하는 전시창설기구 운용 훈련도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서는 각 통제반 별로 총무계획상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실질적인 상황 조치를 위한 연습을 실시했다.

지나해 을지연습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초 상황 보고부터 첫날 자정까지 처리한 사건 메시지 2건 이외에도 "오후 1시경 관내 발송자 미상 우편물 발생에 따른 대책"이라는 군 자체 메시지 1건으로 진행했다.

둘째 날인 20일 아침 상황보고회에서는 군 관련 부서 및 군·경·소방 뿐만 아니라 화순우체국과 한국전력공사화순지사

도 참여하여 심도 있는 전시 현안 과제 토의를 통해 다양한 대응책을 도출했다.

특히 '신너릿재터널 피폭에 따른 종합대책'의 과제를 현실에 맞게 접목, 북한 특수부대원이 드론을 이용하여 터널을 폭파한다는 주제를 설득력 있게 논의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금일 토의에서 도출된 문제와 보완해야 할 사항을 총무계획에 잘 반영해 각종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상황 대처 능력을 배양한다면 어떠한 긴박한 사태에서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거라 생각한다"며 "남은 훈련 기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 군민의 안전에 대해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낙상 예방 안전손잡이 설치 곡성군, 거동불편 취약계층 대상

곡성군 고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21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고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고달면장과 이장단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지역주민 9명을 위원으로 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체는 2022년부터 안전손잡이 설치 봉사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태양광 설치 등 취약계층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안전손잡이 설치 사업은 지난 7월부터 14개 마을 이장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협의체 관계자들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화장실과 현관 등 낙상 사고 위험이 높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안전손잡이를 설치했다.

방문 시 낙상 예방 안내와 주거 환경 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안양섭 민간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취약계층의 낙상 사고 예방과 생활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대영 기자

담양군,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담양군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선이탈경보장치'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담양군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운전 면허를 반납하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2건을 접수했다.

하지만 생계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면허반납이 어려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차선이탈경보장치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자기 소유의 차량을 실제 운전하는 자이고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는 영업용 차량(개인용), 고령자,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기타(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순이다.

접수 기간은 9월 3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후 9월 11일경 최종 선정자를 발표하고 추후 공지를 통해 지정된 장소에서 장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경제교통과(061-380-31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농촌의 경우 운전면허 반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군민 교통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